

## < 꽃, 틱움 展 >

2023. 5월 19일 OPEN  
(부제 : 다 쓰지 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틱우다)  
(주)에이블룸아트

# 1. 전시 개요

- 전시 목적 : 장애예술인의 작품전시를 통한 코로나 이전으로의 자신감 회복
- 전시 주제 : 한국화(조선후기)부터 근현대, 현대작품까지 아우르는 에이블아트 전시회
- 전시 제목(확정) : 꽃.. 티움 (다 쓰지 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티우다) <완당집 유재에서>
- 전시 기간 : 5월 19일~28일(일)
- 전시 장소 : 경기도청 신청사 2층 (행정도서관 갤러리 / 경기도의회홀 옆)
- 참여 작가 : 16 명
- 작품 수량 : 약 50 점(순수회화 40점, 전각미술 10점)

## 2. 기획 의도

- 3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 주눅들고 위축된 장애예술인들의 자신감과 정체성회복을 위한 수준있는 에이블아트 전시회를 기획
- 코로나로 인해 전시공간과 기회가 전무했던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애호가가 협업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의 참여로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
- 장애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역할을 함께 탐색, 장애예술컨텐츠를 위한 팬덤을 형성하고,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과 개인별 자립의 일원으로 에이블아트의 모범적인 사례를 전시공유
- 기획없이 대중 마련되는 장애작가의 전시에 생명력과 스토리를 담아내기 위한 시도와 더불어 수혜와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장애예술컨텐츠를 작품으로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라는 단어를 최대한 자제하여 기획

### 3. 전시 주제

추사 김정희선생이 쓰신 현판 ‘유재’라는 작품에서 인용되었는데  
‘다 쓰지 아니한 재주, 봉록, 재물, 복(福)을 세상, 국가, 백성, 자손에게 돌려주라’  
의미의 싹귀로,  
먼저 깨인자로서 장애인 삶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예술적재능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다 쓰지 아니한 재주’와 같이,  
감추어져 처음에 꺼내어지기는 힘들지만,

싹을 틔우듯 재능을 정성스럽게 보듬어 꽃을 피워 세상에 환원하여  
나눈다는 의미이며,  
장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나눔에 아낌이 없고,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부각시킴

\* 유재 - 다 쓰지 아니하고 남겨 돌려주는 집

다 쓰지 아니한 재주를 남겨 세상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아니한 봉록을 남겨 나라에 돌려주고,

다 쓰지 아니한 재물을 남겨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아니한 복을 남겨 자손에게 돌려주라.

- 완당이 쓰다. <추사 김정희선생의 ‘유재’ 현판중에서>



## 4. 참여 작가 및 선정 배경

### ▶ 순서 무관

- 이 규 재 (안양, 발달장애)
- 김 수 경 (부천, 지체장애)
- 박 춘 자 (부천, 발달장애)
- 이 서 호 (부천, 발달장애)
- 정 홍 배 (안산, 지체장애)
- 이 형 균 (안양, 발달장애)
- 최 하 은 (안양, 뇌병변장애)
- 임 미 량 (의정부, 지체장애)
- 박 영 희 (부천, 지체장애)
- 최 남 숙 (인천, 지체장애)
- 한 민 희 (평택, 지체장애)
- 박 정 란 (수원, 뇌병변장애)
- 김 경 숙 (인천, 지체장애)
- 정 광 민 (안양, 발달장애)
- 이 상 현 (부천, 발달장애)
- 박 주 진 (부천, 발달장애)

※ 추후 작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1.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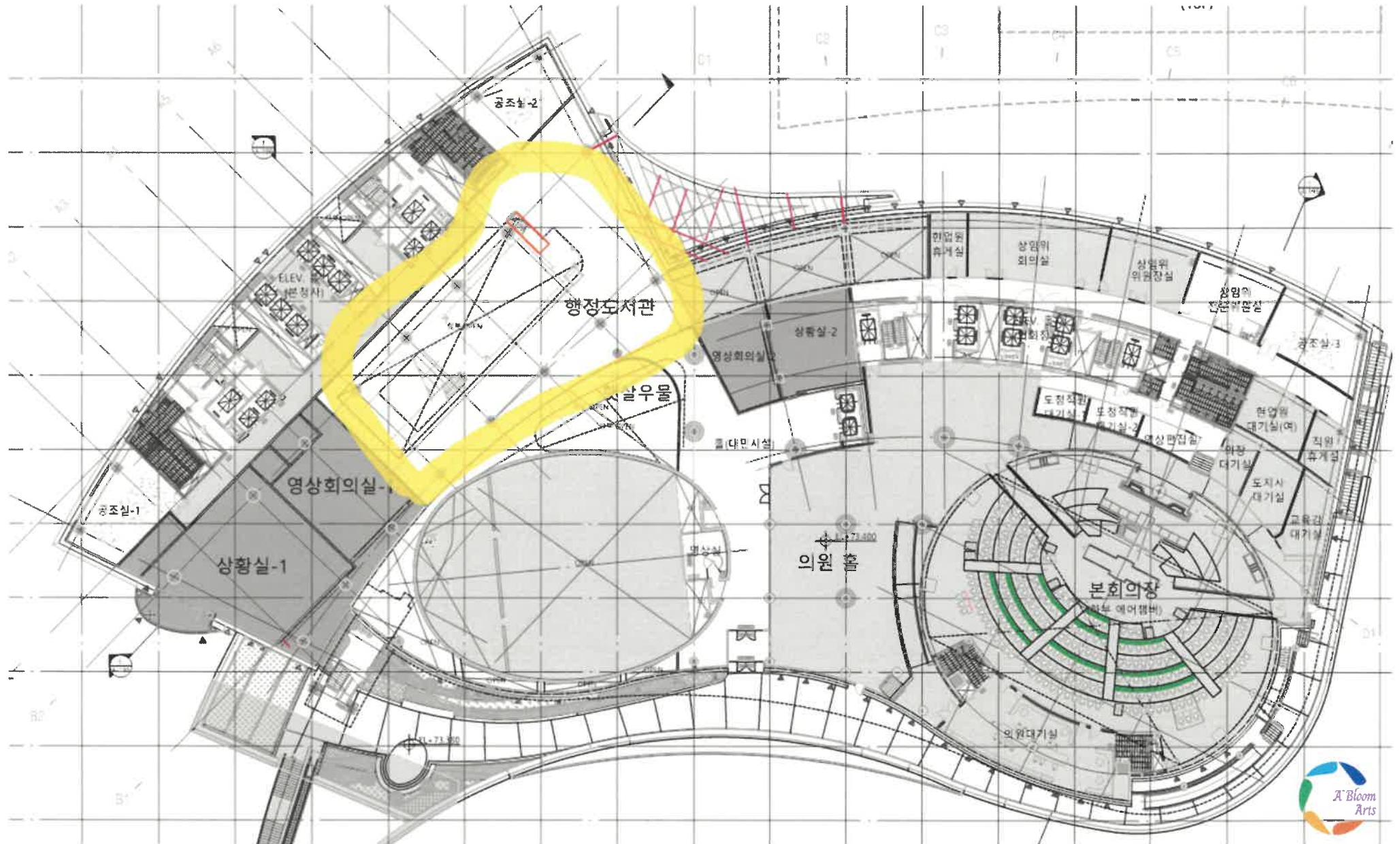
※ 가벽, 릴, 15w이상 주광 스포트, 이젤사용x





## 5-2. 2층 도면

경기도청(신청사) 2층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옆 행정도서관 갤러리



## 6-1. 공간 해설

▶ 섹션1. 조선후기의 꽃 틈움 (다 쓰지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틈우다)

- 조선후기 궁중회화를 넘어선 일상의 미학 전시 : 무병장수와 벽사진경의 기원을 담은 유려한 색채의 풍속화에 담긴 길상을 스토리 텔링 (정조이후 서민과 평범한 이들의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삶을 수준있는 민화를 통해 공유)
- 수려한 분채를 혼합하여 순지에 섬세하게 표현된 자유분방한 창작민화에 반해 탕화의 엄숙미를 동시에 비교 접하며 비범한 세필의 터치를 보여줌으로 작가의 역량을 통해 감탄을 자아냄





## 6-2. 공간 해설(Cont..)

▶ 섹션2. 근현대의 꽃 틈움 (다 쓰지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틈우다)

- 근현대의 시인, 민족사상가, 문학가의 글귀 등을 와당과 조충전 혹은 초형인의 형태를 빌어 완성한 전각작품
- 무명성과 상징성을 넘어 실용성, 예술성을 보여주고 전시대에 1과씩 거치될 4작품 및 사공도(司空圖)의 24시품(시의 풍격에 관한 스물 네 편의 시) 중 두 번째 풍격을 새긴 전각을 통해 전통한국화와 현대의 서양화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또 하나의 완성된 기교를 보여줌
- 한국화와 서양화의 가교로서 인문학적 조형예술 1과, 다과, 무리로 배치하고 탁본은 액자로 판넬위 배접형태로 구성하여 회화와 회화사이 섹션간 공예를 통한 새로이 리프레쉬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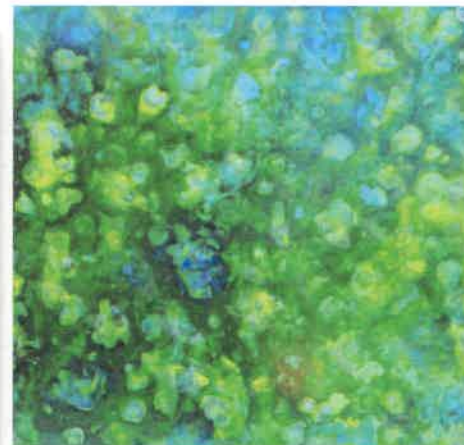
## 6-3. 공간 해설(Cont..)

▶ 섹션 3. 현대의 꽃 틈움 (다 쓰지아니한 재주를 세상에 틈우다)

- 노련미 가득한 기본이 탄탄하게 시작하여 밀레니움세대 이후 현대적 의미에서 대두되는 '아픈 청춘'의 무한한 상상에서 소통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 화려하지만 순수한 색채를 담은 현대적인 작품으로 관람객의 기억으로 남겨지는 기록과 같은 섹션, 발달장애작가와 서번트 작가를 통한 피날레
-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접근을 과정으로 넣어 강렬함으로 빨려가듯 마무리 (이미지 추가 必)

(※ 2案 - 동서양의 조화로움을 느낄수 있는 공간(탱화가 섭외될 경우)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형채와 따스한 색채를 단순화시킨 작품의 (창의적인) 의도를 유의미하고 기억에 남게 전달)



- ▶ 영상 : 미디어아트적 요소를 가미한 영상을 기획하여 비장애작가와 전혀 예술성이 다르거나 뒤떨어지지 않음을 강조, 결국 디지털시대에 장애는 더이상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예술의 또 하나의 오브제임을 선언 (기획, 案)

## 8. 오프닝 식순 ; 시간확인必, 커피케이터링, 영상, 한복공예인형 done by 0415

- 개회선언 (사회자)
- 내외빈축사
- 장애예술인 공연(1, 2)
- 컷팅식 (빔 영상 案)
- 감사의 말씀 및 폐회선언(김수경소장)